

에어컨 올바른 사용 및 관리법

자료제공 : 삼성전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에어컨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는 데서 나아가 최근에는 기류제어·공기청정·탈취·살균·제균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편리한 에어컨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적절한 설치 및 사용관리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1. 에어컨의 올바른 사용공간

* 용량선정과 설치는 전문가에게!

에어컨이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평수에 맞는 용량의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설치장소는 실내기의 경우 실외기와 배관 연결공사를 해야 하므로 실외기에 접한 벽면 가까이 설치한다. 또 실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려면 공기흐름이 막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내기의 흡입구나 배출구 근처에 바람을 막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문 근처나 햇빛이 비치는 데는 피해서 설치한다. 실외기 역시 햇빛이 없고, 가연성 가스 누출 위험이 없고, 에어컨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실외기 배출 공기 및 소음이 이웃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강풍이 실외기의 배출구로 맞부딪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특히, 실외기가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외벽 등 불안정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2. 에어컨의 올바른 사용법

에너지 절약 및 안전을 위해 제품 사용법을 숙지해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희망온도는 실외온도보다 5℃ 낮게 설정한다.**

희망온도를 너무 낮게 두면 인체에 해롭고 전기 소모도 많아진다. 따라서 실외온도보다 5℃ 정도만 낮게 설정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해 효과적 냉방과 절전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또 창문이나 문을 열면 냉방 효과가 떨어지므로 가급적 닫으며,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1시간에 한번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한다.

*** 에어컨 사용 전후 주위 점검을!**

에어컨 실내기가 운전 중이거나 앞면 패널이 닫힐 때 배출구에 어린 아이들이 손가락 등을 넣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한다. 실외기 근처에 물건을 방치하면 에어컨의 공기 흡입을 방해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의 원인이 된다. 특히, 어린이가 올라갔다 떨어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실외기 근처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물건은 치운다. 항상 에어컨 사용 전후 주위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삼성에어컨(AF-SD231 *)

3. 에어컨의 올바른 설치

에어컨의 설치에는 성능·고장·누수·감전·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설치기사가 설치하도록 서비스센터나 설치 전문점에 의뢰한다.

*** 정격전원 이상의 콘센트를 제품 단독으로 사용한다!**

멀티탭이나 다른 기기와 병행 및 전원코드를 연장해 사용하면 감전·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정격 전원 이상의 콘센트를 에어컨 단독으로 사용한다. 또한, 에어컨 전용 개폐기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누수확인!**

실내기 배수호스는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물이 넘쳐 가구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배수가 확



실하도록 설치한다. 실외기 설치 시에도 반드시 배수호수를 연결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난방운전 중 실외기에 생긴 물이 외부로 넘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 얼음이 떨어지면서 상해나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한다.

*** 실외기 설치확인!**

에어컨의 실외기 설치 장소가 부적합하면 고장의 위험이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실외기는 장애물이 없고 통풍이 잘되며,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이 이웃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변에 설치할 때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반드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배관길이가 길어지면 에어컨의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단축되므로 배관은 최대한 짧게 한다.

4. 에어컨의 올바른 관리

올바른 사용법과 더불어 제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래 사용할 제품이므로 사용 기간 동안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관 청소방법**

청소 시 제품에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 시너, 알코올, 아세톤 등으로 닦으면 변색·변형·파손·감

전·화재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원을 차단하고 팬이 회전을 멈춘 후 부드러운 헝겊을 미지근한 물에 적서 꼭 짰 후 닦는다. 에어컨의 좁은 틈새에 쌓인 먼지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낸다. 먼지거름필터는 에어컨 내부로 흡입된 공기 중의 먼지를 걸러주는 장치인데 먼지가 심하면 중성세제를 탄 미지근한 물로 살짝 씻어 그늘에 완전히 말린다. 먼지거름필터 건조 시 직사광선이 닿으면 변형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실외 열교환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효과가 떨어지므로 물을 뿌려가며 먼지를 제거한다. 이때 열교환기 표면이 날카로워 손가락이 베일 우려가 있으므로 두꺼운 면장갑 등을 착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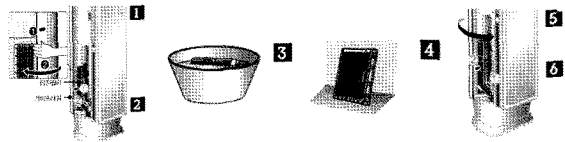
*** 실내기 보관방법**

맑은 날 청소 후 3~4시간 정도 송풍운전을 해 실내기 내부를 건조한다. 실내기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건조한다. 제품을 이동하거나 임의로 움직이면 배관 연결 부가 느슨해지거나 배관이 파손돼 냉매가스가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공기청정 필터청소와 교체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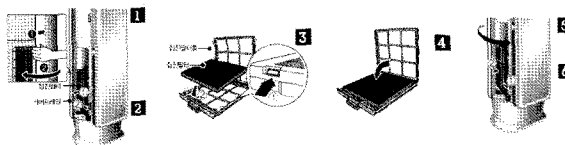
먼지거름필터를 끼우지 않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에어컨의 수명이 줄어들고 전기소모가 많아진다. 또 먼지거름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냉방 효과가 떨어지므로 2주에 한번 정도 청소한다. 단, 청소주기는 사용환경과 사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 자주 청소한다.

공기중 미세먼지나 담배 입자 등을 없애주는 제로필터는 고성능 필터로 물 세척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나 집진필터는 소모품이므로 2년마다 교체한다. 교체 주기는 사용환경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필터교체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에너지 효율, 냉방성능 및 공기청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청소와 관리를 꾸준히 한다.



▲ 제로필터 청소 방법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에어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평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 안전환 장소에 설치하며, 여러 안전수칙과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 주기적으로 청소·교체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이처럼 에어컨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제품을 꾸준히 관리해야 더 오랫동안 최적 성능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집진필터 교체 방법